

존중받는 교사로 행복한 교사로 위로의 씨앗 담뽐!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육한 지 12년 차가 된 보육교사입니다.

보육활동을 하며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부듯해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해 가며 처음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든 점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행복한 보육활동을 하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 등원 시 부모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를 힘이 나게 하지만, 하루의 시작을 힘들게 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며 부모님과 힘들었던 일로 ‘보육활동보호센터 담뽐’에 상담받았던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보육활동을 모두 마치고 아이들도 무사히 하원 후 오후 5시쯤 아버님께서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의 손등에 물린 자국이 있는데 모르셨나요?”라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순간 오늘 보육활동 시간을 생각하며 아버님에게 “오늘 00이는 친구와 다투거나 물린 적이 없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물린 자국의 상처 확인을 위해 키즈노트에 전송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진이 키즈노트에 왔고 사진을 확인했을 때는 물린 상처가 없는 것 같았지만 사진이기에 잘 보이지 않아 “혹시 가운데 부분인가요?”라고 여쭙보았고 아버님께서 아래쪽 엄지손가락 있는 쪽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보아도 물린 자국이 보이지 않아 “아버님 죄송하지만, 사진으로 봐서 물린 자국이 잘 보이지 않네요. 내일 등원 후 확인해 보아도 될까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큰 소리로 화를 내시며 아이를 제대로 보육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난 상처인지 누가 물었는지 CCTV를 통해 확인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원장님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서는 교사의 입장에 서서 저를 다독여 주시며 아버님과 통화를 하겠다고 하였고 통화 후 원장님께서 저를 불러 아버님과 통화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며 제 마음을 달래 주셨습니다. 다행히 원장님께서 아버님과 통화 후 아버님의 마음이 조금 풀리신 것 같아 떨렸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하

루의 보육활동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며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불편한 마음이었고 집에서 계속 생각이 났지만 ‘괜찮아 괜찮아’라고 저 자신을 다독이며 마음을 잡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날 출근하여 아이들을 맞이하고 보육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00이의 어머님께 키즈노트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서운하다는 말씀과 다치지 않게 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키즈노트를 읽은 후 아이들의 보육에 집중할 수 없고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낮잠 시간에 키즈노트에 죄송하다는 말과 하원 시 상처를 잘 확인하겠다는 말을 댓글로 남겼고 잘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즐거운 보육 시간을 보내며 어제의 일도 오늘의 키즈노트도 점점 잊고 즐거운 보육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00의 부모님은 그 이후에도 등원할 때 어두운 표정으로 저와 인사를 나누고 “다치지 않게 봐주세요”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고, 00이가 하원 시에는 우유는 얼마나 먹었는지, 잠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친구랑 싸웠는지 등등 질문을 계속하시며 매일매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질문으로 점점 지쳐가고 아이들의 보육에도 즐거움을 잃어가며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원장님과의 교사 면담을 요청하였고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 힘든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선생님 잘하고 계신다며 저에게 위로의 말과 용기의 말을 많이 해주셨고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이라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검색을 해보았고 딱 뜨는 첫 문구 ‘존중받는 교사, 행복한 아이들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며 ‘내가 존중받는 교사가 되어 행복한 아이들의 시작이 내가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은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며,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담풀 사이트에 들어가 저의 마음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심리 건강 자가진단을 해보았고 저의 정신 건강 영역은 다행히 ‘문제없음’ 범위에 있었습니다. 심리 건강 자가 진단을 끝낸 뒤 상담신청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에 대해 자세한 진술 후 보육현장 전문가에게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신청을 다음 날 전화가 온 후 접수가 되었음을 문자로 알려주셨습니다. 상담신청 7일 후 상담신청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답변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저의 글을 읽어 보시고 보육현장 전문가님께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주신 답변이었습니다.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부모님께 미흡하게 대처했던 부분을 이해하고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답변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기

부모님의 민원 후 걱정과 두려움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러한 감정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소통 유지

어린이집에서 부모님이 보지 못하는 시간 동안 아이의 생활을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등·하원 시 부모님의 질문 전에 부모님께 먼저 다가가 00이의 하루 중 걱정하시는 부분을 “친구들과 다툼없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놀이 내용과 수면시간은 알람장을 확인해 주세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부모님과 소통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의 감정관리

부모님의 반응에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고 심리적 어려움이 생길 때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해 편안한 마음상태를 유지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민원에 대처하기

부모님께서 과도하게 일과 운영에 간섭하고 계신다면, 원장님과 상의 후 경계를 설정하여 적절한 선을 넘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하여 과도한 민원을 예방하고,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담 후 느낀 부분들을 보육활동에 직접 실천해 보려 노력하였습니다.

답변을 받은 다음 날 00이가 하원할 때 부모님에게 먼저 다가가 “오늘 우리 00이는 친구와 다툼없이 너무 잘 지냈어요”, “수면시간과 놀이 내용은 키즈노트에 적어놓았으니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며 하원 시간을 맞이해 보았습니다. 00이의 부모님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을 먼저 다가가 말씀드리니 웃으시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담 후 작은 실천이지만 변화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보육활동 보호센터 담풀’의 상담 내용을 실천하며 더욱더 나은 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방법,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방법, 선생님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 과도한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심으로써 앞으로 보육활동을 하며 상담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더욱더 자존감이 높은 교사, 아이들을 행복하게 보육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보육교사로 일을 하며 보육활동 침해된 일이 있을 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며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상담 종료 후 1달 이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해 주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힐링프로그램 정보

도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풍’이라는 곳을 알게 되어 앞으로 보육교사로 일을 하며 힘든 상황에 대해 상담받으며 존중받는 교사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풍’이라는 곳이 보육교직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많은 도움으로 마음을 위로받고 존중받는 교사로 성장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보육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